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4면
"교사 행정업무 과감히 줄이겠다"

전주매일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음 4월 17일) 제351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청소년이 살고 싶은 전북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 '팡파르'

도내 100여개 기관·단체 참여 전시·체험 부스 운영
상담 지원·진로 컨설팅·기후위기 대응 활동 등 준비돼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공동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가 23일부터 24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고 있다고 밝혔다.

첫날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 얼쑤마루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최병관 행정부지사와 유정기 도 교육청 부교육감, 도내 청소년 기관·단체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 부지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11회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 학교 밖 청소년 포상, 개막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관련사진 3면〉

이번 박람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도와 도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 '청소년이 살고 싶은 전북, 머물고 싶은 전북'을 주제로 전북 국제협력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 시설협회, 전북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함께했다.

24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박람회는 유명인 진로 토크 콘서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 컨설팅,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글로벌 문화주간 국제세미나, 청소년 무형유산 특별공연 등 도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진로 토크 콘서트는 23일 오전 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청중 350여명을 대상으로 튀르키예 출신 알파고 시나씨(35)씨가 세계화 시대 청소년 관점의 변화로 진행했고, 24일은 벨기에 출신으로 우리나라에서 방송활동을 진행하는 줄리안 퀸타르트(36)씨가 세계시민 청소년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11시부터 1시간동안 강연한다.

특히, 도내 100여 개의 기관·단체가 미래·진로, 지역·성장, 상담, 그린, 안전, 글로벌 등 6개 분야 100여 개의 전시·체험 부스를 운영해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청소년 미래 환경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AI), 드론, 가상현실(VR) 문화체험, 청소년 문화예술 공연, 청소년 상담 지원, 진로 컨설팅, 기후위기 대응 활동, 안전 체험활동, 청소년 멘토 특강 등 다채로운 활동들이 준비돼 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박람회 기간에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해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살아갈 지구에 대해 고민할 시간도 마련됐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이번 박람회가 도내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전시, 체험, 강연을 통해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1회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효행부문 수상자 조은 학생은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에서 자랑스러운 청소년 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저를 추천해주신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전북에서 청소년을 위한 박람회가 개최되고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수상의 기쁨을 전했다. /이만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일행이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제공〉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주의 가치 헌신"

김관영 지사, 서거 15주기 추도식 참석… 헌화·분향 등 참배

"더 많은 소통·협력 바탕으로 도정 운영, 상생 정책 구현 노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소재 대통령 묘역을 찾아 추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김관영 도지사가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추도식에 앞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노 전 대통령의 신념과 국정 활동 당시를 회상하며 고인의 넋을 추념했다.

이어서 오후 2시 대통령묘역 앞 생태문화공원 내 특설추도식장에서 열린 추도식에서는 3,000여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추모한 뒤 헌화와 분향을 하며 참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노 전 대통령께서는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화합을 중시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셨다."라며,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 더 많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정을 운영하고, 상생을 위한 정책을 많이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추도식에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각 정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만호 기자

도민 안전 정책 '탄력'… 전북자치도, 특교세 127억 확보

폭염대책비 11억1000만원·하천 준설사업 42억9000만원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도민 안전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사업, 안전위험시설 개선 등 각종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50개 사업 127억 원(도 63억원, 시 군 64억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전북자치도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지방하천 준설, 생활 안전망 구축 등의 안전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소통한 결과이다.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주요사업은 △폭염대책비 11억1,000만원 △해빙기 포트홀 보수 8억3,000만원 △지방하천 준설 사업 42억9,000만원 △저수지 원격계측 경보시스템 구축사업 7억원 △마을주민 보호 구간 및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 8억6,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2억6,000만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10억3,000만원 △재해취약 미정비 소하천 정비 등 하천 정비와 소교량 정비 등 26억3,000만원 △공공시설 내진보강 공사 4억원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 1억원 등이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중고로 인해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재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특별교부세를 적기에 확보해 각종 재난 예방사업을 제때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각종 재난 상황에 선제 대응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 및 재난 안전과 관련된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해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각종 현안 사업이 더욱 동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산화텅스텐 생산 기업, 새만금 투자

한국 사먼텅스텐 금속재료, 국가산단서 신규공장 준공

초경합금 소재인 '산화텅스텐'을 생산하는 한국 사먼텅스텐 금속재료㈜가 23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신규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산화텅스텐은 텅스텐과 산소로 이뤄진 무기 화합물이다. 〈관련사진 3면〉

한국 사먼텅스텐 금속재료는 새만금산단(2공구) 용지 1만㎡에 1,300만 달러를 투자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화텅스텐 자동화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연간 1,500t의 산화텅스텐과 텅스텐산나트륨을 생산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한국 사먼텅스텐 금속재료의 생산공장 준공을 환영한다. 새만금에서 세계 최고의 텅스텐 재료 생산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유망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뉴시스